

# 축구, 야구, 골프 우리말로 표현하면 더 쉬워요!



11기 박서현 11기 기자 + 구독 1:1 채팅  
2024.10.16. 22:53 조회 12

댓글 0 URL 복사

## 축구, 야구, 골프 우리말로 표현하면 더 쉬워요!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11기 째냥째냥  
기다인 문진영 박서현 유서영 하수정

“슛~~!!! 골인입니다 골인!!!” 축구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운동 경기 용어에는 우리말보다는 영어나 외래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그 운동 경기가 시작된 나라의 규칙과 용어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말 사용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축구, 야구, 골프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 농구 용어 순화하기

올해 한국프로농구가 창설된 지 27주년이다. 농구 경기를 시청할 때, 대다수가 해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농구 경기 도중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면, 우리말로 쉽게 고칠 수 있는 표현들이 많다.

농구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2001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운동 경기 용어 순화집’을 발간하며 노력한 바 있다. 순화집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등의 15개 운동 종목에서 사용하는 1,490개 용어를 순화했다. 1,490개 용어가 국적 불명인 외국어,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쓰이는 용어였기 때문에 순화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문화관광부는 83개의 농구 용어를 순화했다.

기존 용어	순화 용어	의미
골 텐딩	득점 인정	정점에서 골 바구니를 향해 내려오는 공을 치는 것
턴 오버	실책	실책으로 상대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가는 것
페인트 존	3초 제한 구역	골 바구니 밑의 3초 제한 구역
커트 인 플레이	안쪽으로 뛰기	공격할 때 수비를 제치고 골 바구니를 향해 들어가는 것

① 문화관광부가 순화한 농구 용어 중 4개

2023년,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도 스포츠윤리센터와 협력하여 어려운 스포츠 용어와 스포츠 비리 및 인권 침해 사건 조사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스포츠 용어’ 및 ‘스포츠 비리 및 인권 침해 사건 조사 관련 용어’ 중 익숙하지 않은 외래 용어, 어려운 한자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신조어 등을 수집하여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했다. 그 결과 50 개의 용어를 순화해 일반 국민들이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그중 농구 용어에서는 ‘바스켓 굿’이라는 용어를 ‘추가 자유투’라고 순화했다.

기존 용어	순화 용어	의미
바스켓 굿	추가 자유투	슛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반칙이 있었음에도 공을 넣었을 때, 득점이 인정되고 자유투 하나가 추가로 주어지는 일

②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스포츠윤리센터가 순화한 농구 용어

이 외에도 순화한 농구 용어는 다음과 같다.

기존 용어	순화 용어	의미
노룩 패스	감각 연결, 감각 패스	자기편을 쳐다보지 않고 연결하는 것
노 마크 찬스	단독 기회, 단독 찬스	수비가 없는 공격 기회
더블 클러치	2단 동작	공중에서 하는 2단 동작
더블 팀	이중 수비	한 명의 공격 선수를 두 명의 수비 선수가 방어하는 것
데드	경기 중단	공이 줄 밖으로 나가거나 반칙으로 경기가 중단된 상태

③ 순화한 농구 용어

#### 야구 용어 순화하기

조해연 한국야구위원회 원로자문위원이 저자인 <조해연의 우리말 야구용어 풀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야구 용어가 우리말과 영어, 한자어와 일본이 만든 조어, 일본이 자기들 감각에 맞게 변조한 일본식 영어 등 여러 갈래로 어수선한 편이라고 했다.

한국프로야구가 시작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용어는 아직 일제강점기에 머물러 있다. ‘야구’라는 운동 이름 자체도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이지만, 경기 중 사용되는 표현과 용어도 우리말을 찾아보기 어렵다. 야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지훈련’도 일본에서 온 외래 용어에 속한다.

프로 야구에서 일본식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도 했다. 다만, 일본식 표현을 영어식 표현으로 바꾼 것들은 조금 아쉽다.

기존 용어	바꾼 용어	의미
4구	볼넷	타자가 타석에서 4개의 볼을 골라 1루로 나가는 것
데드볼	몸에 맞는 공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의 몸 또는 옷에 닿는 경우
러닝 홈런	장내 홈런	타구가 울타리(펜스)를 넘지는 않았지만, 야수가 공을 쫓고 있는 사이에 타자가 베이스를 돌아 홈인하는 일
직구	패스트 볼	다른 구종에 비해 가장 직선에 가깝고 빠르게 날아가는 공
병살	더블 플레이	두 사람의 주자를 한꺼번에 아웃시키는 일
나이트	나이트 게임	밤에 조명등을 켜고 진행되는 경기

④ 야구 용어 중 일본식 표현을 바꾼 것

북한에서는 운동 경기를 진행할 때 순우리말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에 야구 용어도 순우리말로 쓰고 있다.

기존 용어	순우리말 용어	의미
스트라이크	정확한 공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지나가는 일
볼	부정확한 공	투수가 던진 공 가운데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
더블 플레이	이중실격	두 사람의 주자를 한꺼번에 아웃시키는 일
번트	살짝 치기	투수가 던진 공이 가까운 거리에 떨어지도록 타자가 배트를 공에 가볍게 대듯이 맞추는 일
야간 경기	등불게임	밤에 조명등을 켜고 진행되는 경기
주자	진격수	누에 나가 있는 사람

⑤ 북한의 순우리말 야구 용어

이외에도 ‘특정팀과 세 번 연속 진행된 경기에서 두 경기를 이기는 것’의 의미를 가진 위닝 시리즈는 ‘우세 3연전’으로 순화할 수 있으며, ‘삼연전에서 두 경기 이상 패하는 일’의 의미를 가진 ‘루징 시리즈’는 ‘열세 3연전’으로 순화할 수 있다.

머지않아 한국야구 120주년, 프로야구 50주년을 맞이하게 될 한국 야구에서 질게 배어든 일본식 표현을 벗어던지고 우리말화 작업에 더욱 힘써야 할 때이다.

골프 용어 순화하기

골프 용어 중 ‘보기, 파, 버디, 홀’ 등을 모든 나라가 공통어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글화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대한골프협회(KGA)는 몇몇 용어들을 한글화로 바꾸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용어	바꾼 용어	의미
핸디캡	난이도	홀이 쉽고 어려움을 뜻함
잠정구(暫定球)	프로비저널 볼	친 공이 분실되거나 코스 밖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원래 친 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여 치는 공


⑥ 대한골프협회가 바꾼 골프 용어

이에 대한골프협회 관계자는 “2017년까지는 협회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두지 않았다. 2018년부터 지침서가 나오다 보니까 골프 규칙을 중심으로 수정하게 됐다”며 “골프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공통 용어가 많다. 많은 부분을 우리말로 바꾸기는 어렵다. 자체적으로도 맞는 우리말 표현인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 번역가가 국립국어원에 확인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이나 협회에서 스포츠를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경기를 볼 때나 일상 생활에서 얘기할 때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잘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말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스포츠 용어의 우리말 상용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자주 우리말을 사용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클린봇이 악성 댓글을 감지합니다.

설정

 관심글 댓글 알림

한글문화연대 사무국

댓글을 남겨주세요



등록